

규제개혁 시리즈 15-02
2015. 05

2015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결과

목 차

<요 약>

I . 조사개요	1
II . 규제개혁 평가	2
1. 2015년 규제개혁 체감도	2
2. 항목별 체감도	4
3. 분야별 체감도	5
4. 규제로 인한 투자계획 포기 및 지체 경험	14
5. 규제개선 시 투자의향	14
III . 향후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	15
1. 향후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기대	15
2. 규제개혁 실현 가능성	16
3. 규제개혁 우수정책	17
4.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최우선 개선과제	17
<참고문헌>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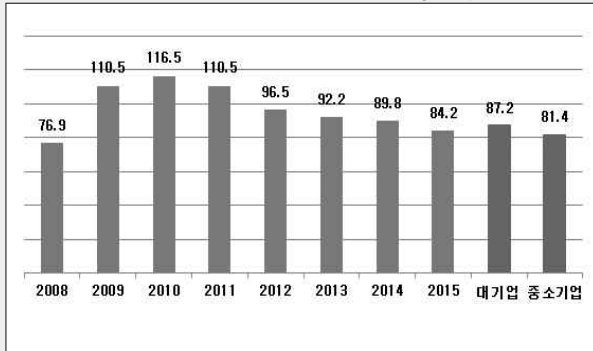
- 이 자료는 본회 규제개혁팀 유진근 연구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3771-0169 FAX : 02-6234-5223 E-mail : jkyoo@fki.or.kr

1. 규제개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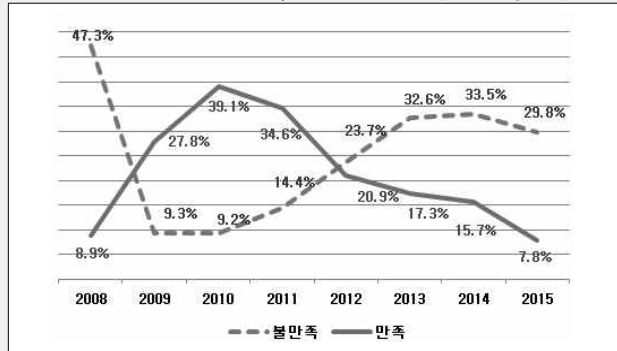
□ 2015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84.2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 [항목별 체감도] 규제품질 제고(89.5), 유사 행정규제 정비(88.5), 미등록 규제 정비(86.9), 규제개혁 시스템 개선(84.5), 신속한 후속조치(80.5), 공무원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75.8) 順
- [분야별 체감도] 관광·의료(93.8), 물류·유통(91.4), 기타 서비스(91.0), 환경·에너지(90.6), 건설·건축(88.3), 금융(84.5), 방송·정보통신(84.5), 노동(81.9), 대기업(76.0) 順

<규제개혁 체감도 추이>



<규제개혁 만족/불만족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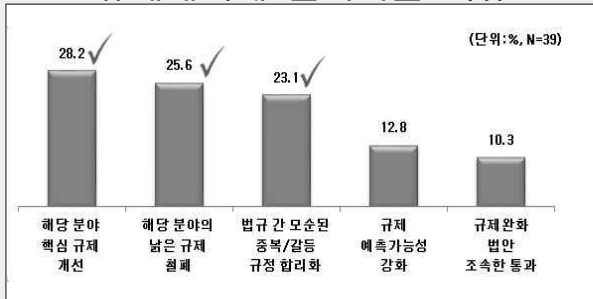


* '14년까지 분회 회원사 대상, '15년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상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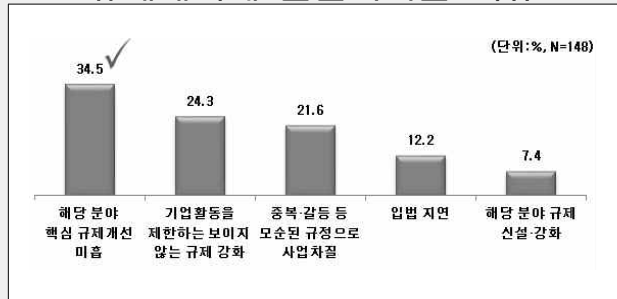
□ 해당 분야 핵심 규제개선 여부가 규제개혁 체감도에 가장 큰 영향

- 정부 규제개혁에 만족하는 이유는 해당업무 분야에 대한 핵심적인 규제개선 (28.2%), 낡은 규제 철폐(25.6%) 順으로 응답
- 정부 규제개혁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해당업무 분야에 대한 핵심적인 규제개선 미흡(34.5%),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보이지 않는 규제 강화(24.3%) 順

<규제개혁에 만족하는 이유>



<규제개혁에 불만족하는 이유>



2. 향후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

□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응답(45.0%)이 높다(18.4%)의 2배 이상

○ 매우 높음(1.8%), 높음(16.6%), 보통(36.6%), 낮음(33.0%), 매우 낮음(12.0%)

□ 규제개혁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37.3%)이 높다는 응답(9.1%)의 4배

○ 매우 높다(0.4%), 높다(8.8%), 보통(53.6%), 낮다(27.3%), 매우 낮다(10.0%)

○ 규제개혁 실현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 및 능력에 대한 불신’(73.9%)이 가장 큰 이유

□ 규제개혁 우수정책은 규제정보 포털 운영(45.0%), 규제개혁 신문고(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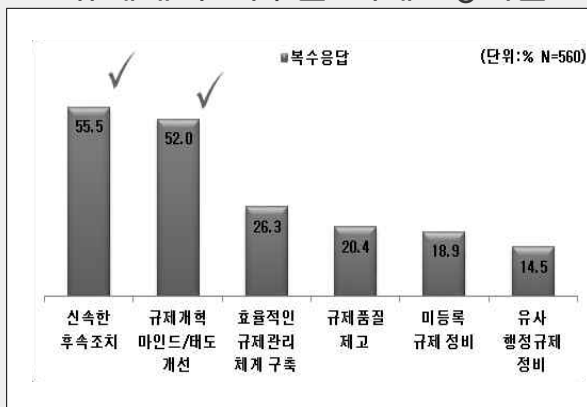
○ 규제개혁 우수정책은 규제정보 포털 운영(45.0%), 규제개혁 신문고(24.2%), 규제 장관 회의(12.4%),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12.4%), 규제 기요틴(6.0%) 順

□ 항목별로는 신속한 후속조치,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및 태도 개선, 분야별로는 대기업 규제, 노동 규제개선이 최우선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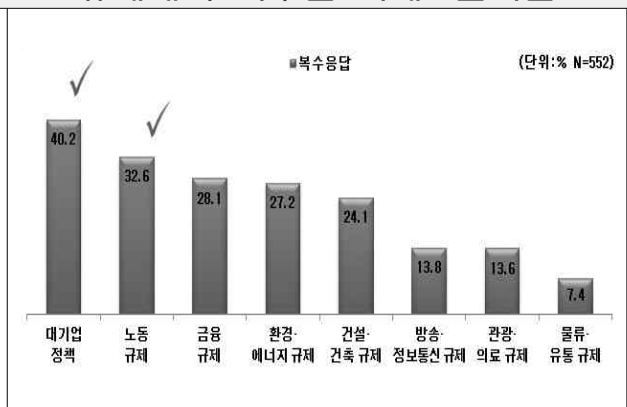
○ [항목별] 법령 개선 등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55.5%),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와 태도 개선(52.0%), 규제총량제 등 효율적인 규제관리체계 구축(26.3%), 규제 품질 제고(20.4%), 미등록 규제 정비(18.9%) 順

○ [분야별] 대기업 정책(40.2%), 노동 규제(32.6%), 금융 규제(28.1%), 환경·에너지 규제(27.2%), 건설·건축 규제(24.1%), 방송·정보 통신 규제(13.8%), 관광·의료 규제(13.6%), 물류·유통 규제(7.4%) 順

<규제개혁 최우선 과제-항목별>



<규제개혁 최우선 과제-분야별>



I 조사개요

□ [조사목적] 지난 1년간 규제개혁 성과 평가 및 향후 개혁방향 제시

-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항목별 및 분야별로 조사
- 기업의 규제개혁 기대감 및 최우선 개선과제를 조사하여 규제 개혁방향 제시

□ [응답기업] 560개 기업(256개 대기업, 304개 중소기업)

<업종별 응답기업 수>

업종	제조	일반 서비스	건설	물류 유통	금융	화학 에너지	IT	기타*	계
응답기업 수	290	79	68	62	23	16	14	8	560

* 기타 : 철강·금속(6), 섬유(2)

□ [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

□ [조사방법]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 [조사기간] '15.3.13~'15.4.3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 4.14% Point

□ [조사내용] 기업의 규제개혁 만족도 및 향후 개선과제

- 지난 1년간 전반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 및 항목별 체감도
 - 규제 항목별, 분야별 체감도
- 지난 1년간 규제로 인한 투자계획 포기·지체 경험
- 규제개선 시 투자의향
- 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기대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견
- 현 정부가 지난 1년간 시행한 규제개혁 우수정책
- 규제개혁 체감도 개선을 위한 최우선 추진과제

II 규제개혁 평가

1. 2015년 규제개혁 체감도

· 규제개혁 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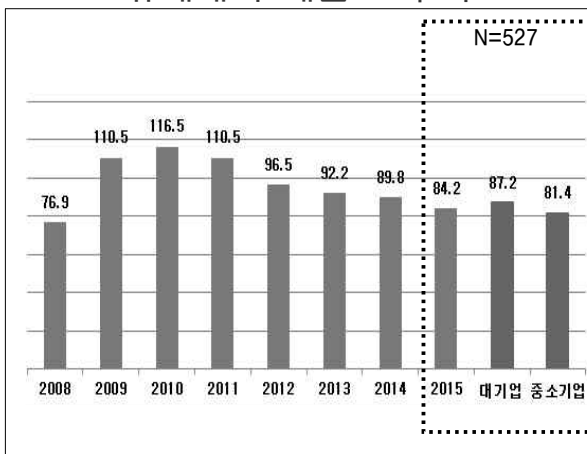
- 규제개혁 체감도는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불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초과 시 만족, 100 미만은 불만족하는 것으로 해석

$$* \text{체감도 산출식} = \left(\begin{array}{c} \text{매우만족 비율} \times 100 \\ + \\ \text{약간만족 비율} \times 50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c} \text{매우불만족 비율} \times 100 \\ + \\ \text{약간불만족 비율} \times 50 \end{array} \right)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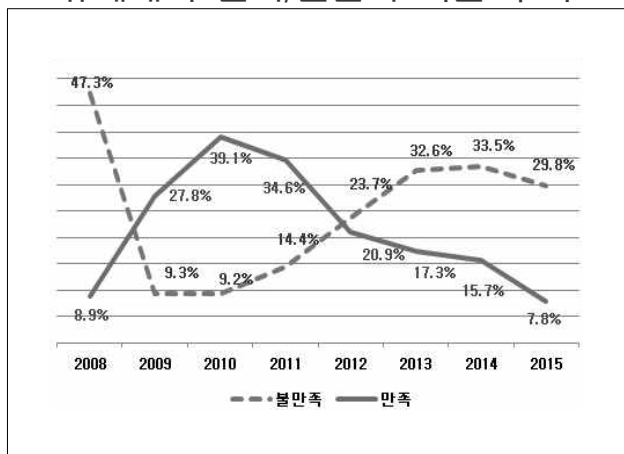
□ 2015년에 조사된 규제개혁 체감도는 84.2

-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5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작년보다 5.6p 하락한 84.2로 '09년 이후 역대 최저
- 매우 만족(1.9%), 약간 만족(6.0%), 보통(62.4%), 약간 불만족(18.4%), 매우 불만족(11.3%)
- '08년 2월 조사한 참여정부에 대한 규제개혁 체감도(76.9)보다는 높은 수치이나 '09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임

<규제개혁 체감도 추이>



<규제개혁 만족/불만족 비율 추이>



* '14년까지 본회 회원사 대상, '15년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상 조사

□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업종별로는 금융업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대기업(87.2)의 체감도가 중소기업(81.4)의 체감도보다 5.8p 높으나 오차범위 이내
- 업종별 체감도는 금융(97.8), 화학·에너지(93.3), 제조(86.2), 일반서비스(83.6), 건설(80.2), 유통·운송(77.1), IT(69.2) 順

<업종별 체감도>

응답 수(응답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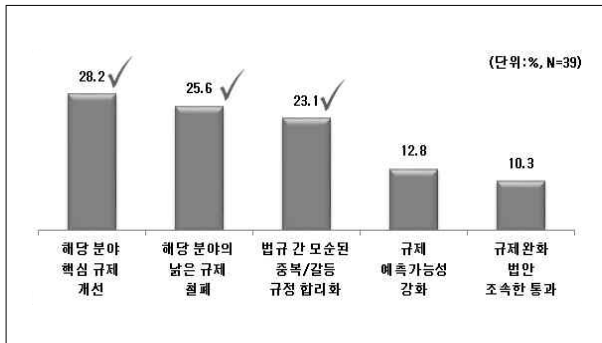
업종	금융 (N=23)	화학·에너지 (N=15)	제조 (N=273)	일반서비스 (N=73)	건설 (N=63)	유통·운송 (N=59)	IT (N=13)
매우만족	1(4.3)	1(6.7)	3(1.1)	3(4.1)	1(1.6)	0(0.0)	0(0.0)
약간만족	2(8.7)	1(6.7)	20(7.3)	4(5.5)	4(6.3)	1(1.7)	0(0.0)
보통	16(69.6)	9(60.0)	176(64.5)	42(57.5)	36(57.1)	39(66.1)	7(53.8)
약간불만족	3(13.0)	3(20.0)	47(17.2)	14(19.2)	13(20.6)	10(16.9)	4(30.8)
매우불만족	1(4.3)	1(6.7)	27(9.9)	10(13.7)	9(14.3)	9(15.3)	2(15.4)
체감도	97.8	93.3	86.2	83.6	80.2	77.1	69.2

* 철강·금속(6), 섬유(2) 기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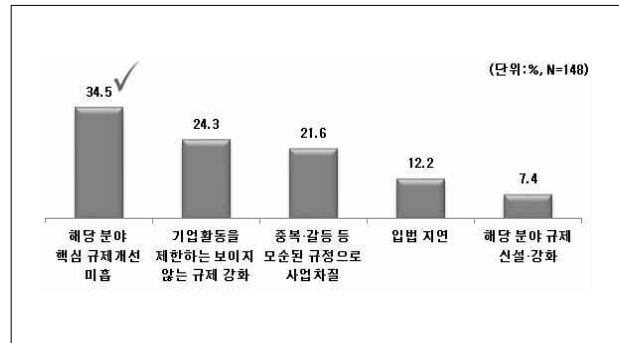
□ 해당 분야 핵심 규제개선 여부가 규제개혁 체감도에 가장 큰 영향

- 규제개혁 만족 이유와 불만족 이유 모두 핵심 규제개선 여부 때문이라는 응답이 1순위로 분야별 핵심규제 완화가 체감도의 관건임을 시사
 - 정부 규제개혁에 만족하는 이유는 핵심적인 규제개선(28.2%), 낡은 규제 철폐(25.6%), 중복·갈등 규정 합리화(23.1%), 규제 예측가능성 강화(12.8%), 규제 완화 입법안의 조속한 통과(10.3%) 順으로 응답
 - 정부 규제개혁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핵심적인 규제개선 미흡(34.5%), 행정지침 등 보이지 않는 규제 강화(24.3%), 중복·갈등 규정으로 인한 사업 차질(21.6%), 입법 지연(12.2%), 오히려 규제 신설·강화(7.4%) 順으로 응답

<규제개혁에 만족하는 이유>



<규제개혁에 불만족하는 이유>



2. 항목별 체감도

· 항목별 체감도 조사항목

- 미등록 규제 정비, 규제심사 내실화로 규제품질제고, 법령개선 등 신속한 후속조치,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 효율적인 규제개혁 집행체계 구축, 유사행정규제 정비

□ 6개 항목 모두 체감도 수치 100 미만

- 규제품질 제고(89.5), 유사행정규제 정비(88.5), 미등록 규제 정비(86.9), 규제개혁 시스템 개선(84.5), 신속한 후속조치(80.5),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75.8) 順

< 항목별 체감도 및 응답결과 >



응답 수(응답비율, %)

	규제품질 제고	유사 행정규제 정비	미등록 규제 정비	규제개혁 시스템 개선	신속한 후속 조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
매우만족	4(0.8)	5(0.9)	4(0.8)	3(0.6)	8(1.5)	7(1.3)
약간만족	41(7.9)	43(8.1)	38(7.3)	32(6.0)	40(7.3)	46(8.4)
보통	352(68.0)	351(65.7)	336(64.7)	340(63.9)	288(52.8)	257(46.9)
약간불만족	84(16.2)	94(17.6)	100(19.3)	111(20.9)	149(27.3)	151(27.6)
매우불만족	37(7.1)	41(7.7)	41(7.9)	46(8.6)	60(11.0)	87(15.9)
계	518(100)	534(100)	519(100)	532(100)	545(100)	548(100)
체감도	89.5	88.5	86.9	84.5	80.5	7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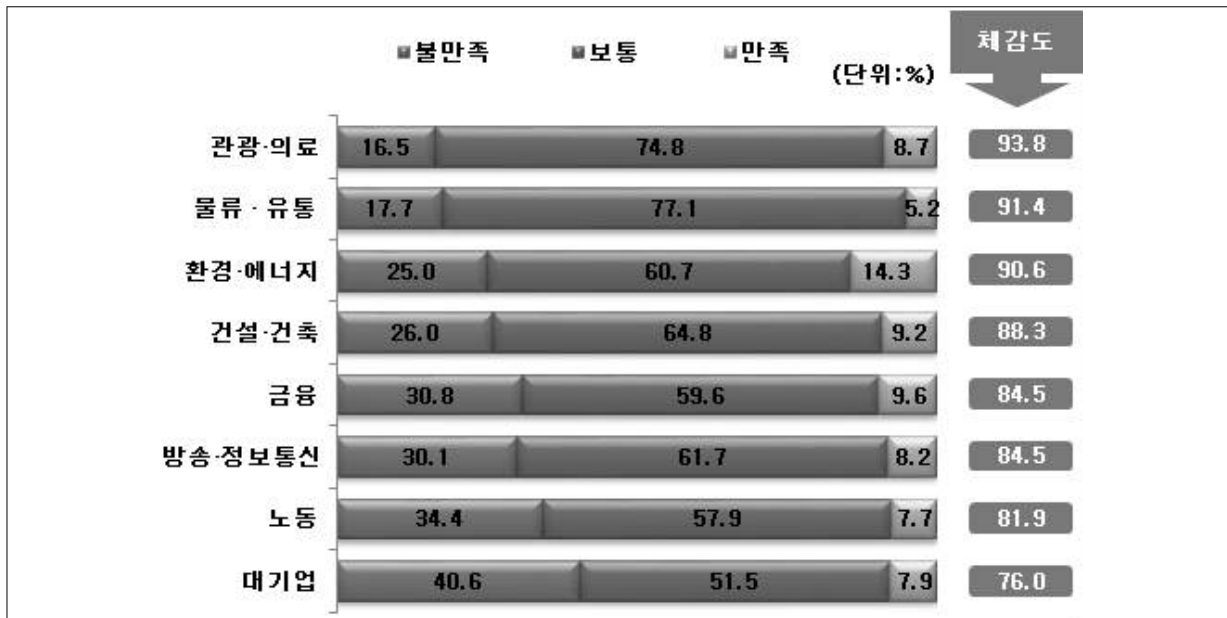
3. 분야별 체감도

1) 총괄

□ 8개 분야¹⁾ 모두 체감도 100 이하

- 분야별 체감도는 관광·의료(93.8), 물류·유통(91.4), 환경·에너지(90.6), 건설·건축(88.3), 금융(84.5), 방송·정보통신(84.5), 노동 (81.9), 대기업(76.0) 順

<분야별 체감도>



응답 수(응답비율 %)

	관광·의료	물류·유통	환경·에너지	건설·건축	금융	방송·정보통신	노동	대기업
매우만족	2(0.4)	3(0.6)	8(1.5)	4(0.7)	4(0.8)	8(1.5)	6(1.1)	6(1.1)
약간만족	43(8.3)	24(4.6)	68(12.8)	45(8.5)	47(8.8)	35(6.7)	36(6.6)	37(6.8)
보통	385 (74.8)	401 (77.1)	323 (60.7)	342 (64.8)	317 (59.6)	322 (61.7)	315 (57.9)	279 (51.5)
약간불만족	59(11.5)	65(12.5)	82(15.4)	97(18.4)	108 (20.3)	101 (19.4)	129 (23.7)	131 (24.2)
매우불만족	26(5.0)	27(5.2)	51(9.6)	40(7.6)	56(10.5)	56(10.7)	58(10.7)	89(16.4)
계	515 (100)	520 (100)	532 (100)	528 (100)	532 (100)	522 (100)	544 (100)	542 (100)
체감도	93.8	91.4	90.6	88.3	84.5	84.5	81.9	7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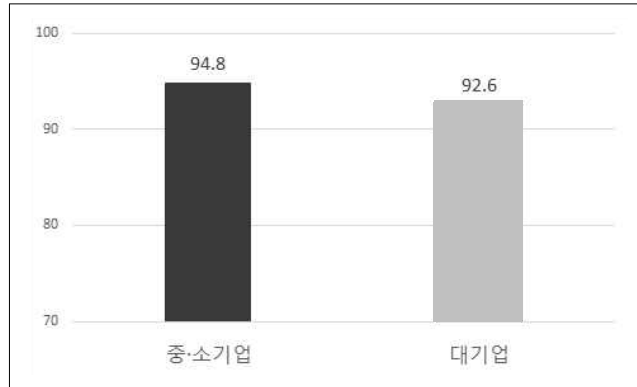
1) '15년 조사분야에 관광·의료, 방송·정보통신, 기타 서비스 분야가 추가되고, 토지·공장설립과 건설·건축이 기업입지 및 건설·건축으로 조사됨

2) 관광·의료 분야

□ 관광·의료 분야 체감도는 93.8

- 관광·의료 분야의 체감도는 93.8을 기록하였으며, 대기업의 체감도(92.6)와 중소기업의 체감도(94.8)는 오차범위 이내로 규모별 차이는 없음
 - 체감도 추이 : 93.8('15)

<기업 규모별 체감도(관광·의료)>



<규모 및 업종별 응답결과(관광·의료 분야)>

(응답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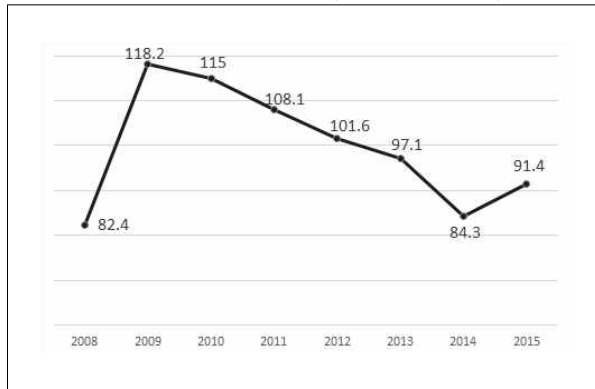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 전 체(515) ■		5.0	11.5	74.8	8.3	0.4
기업 규모	대기업(237)	5.5	13.1	73.0	7.6	0.8
	중소기업(278)	4.7	10.1	76.2	9.0	0.0
업종	제조(270)	5.2	9.3	75.2	10.4	0.0
	건설(63)	4.8	15.9	68.3	11.1	0.0
	유통·운송(56)	5.4	14.3	78.6	1.8	0.0
	IT(12)	8.3	8.3	83.3	0.0	0.0
	일반서비스(76)	5.3	14.5	73.7	3.9	2.6
	금융권(18)	0.0	16.7	77.8	5.6	0.0
	섬유(2)	0.0	0.0	100.0	0.0	0.0
	화학·에너지(12)	8.3	0.0	66.7	25.0	0.0
	철강·금속(6)	0.0	16.7	83.3	0.0	0.0

3) 물류·유통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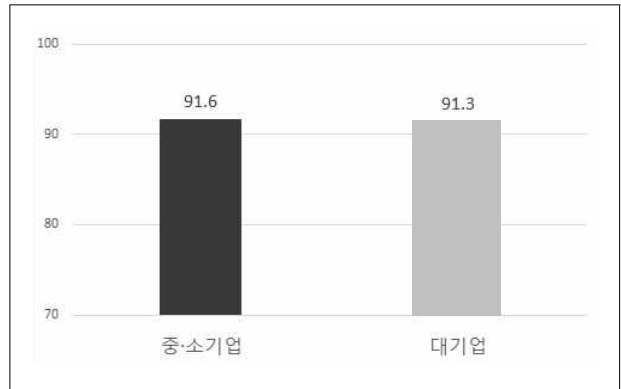
□ 물류·유통 분야 체감도는 91.4

- 물류·유통 분야 체감도는 7.1p 상승하여 '09년 이후 최초로 반등함
 - 체감도 추이 : 82.4('08)→118.2('09)→115.0('10)→108.1('11)→101.6('12)→97.1('13)→84.3('14)→91.4('15)
- 대기업의 체감도(91.3)와 중소기업의 체감도(91.6)가 비슷한 수준으로 기업 규모별 체감도 차이는 없으며, 업종별로는 유통, IT 부문 불만족의 비율이 높음
 - * 철강·금속이 50%지만 샘플 수가 적어 유의미한 결과로 해석하기 어려움

<연도별 체감도(물류·유통)>



<기업 규모별 체감도(물류·유통)>



<규모 및 업종별 응답결과(물류·유통 분야)>

(응답비율, %)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 전 체(520) ■		5.2	12.5	77.1	4.6	0.6
기업 규모	대기업(240)	5.4	13.3	75.8	4.2	1.3
	중소기업(280)	5.0	11.8	78.2	5.0	0.0
업종	제조(274)	4.4	12.8	77.0	5.5	0.4
	건설(61)	4.9	14.8	78.7	1.6	0.0
	유통·운송(60)	10.0	15.0	71.7	3.3	0.0
	IT(12)	25.0	0.0	75.0	0.0	0.0
	일반서비스(73)	4.1	6.8	79.5	6.8	2.7
	금융권(19)	0.0	15.8	84.2	0.0	0.0
	섬유(2)	0.0	0.0	100.0	0.0	0.0
	화학·에너지(13)	0.0	7.7	84.6	7.7	0.0
	철강·금속(6)	0.0	50.0	50.0	0.0	0.0

4) 환경·에너지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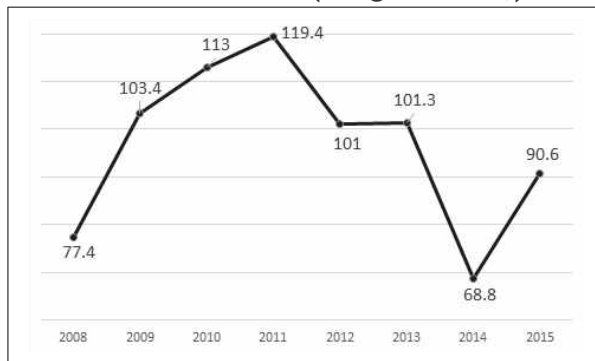
□ 환경·에너지 분야 체감도는 90.6

○ 전년대비 21.8p 상승했으나 전년 체감도(68.8)가 매우 낮았던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이며, 규모별 체감도 차이는 오차범위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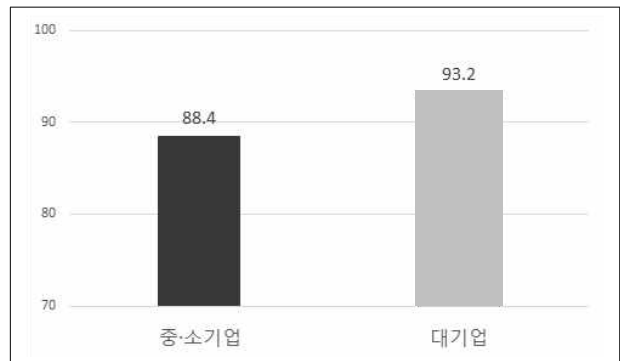
- 체감도 추이 : 77.4('08)→103.4('09)→113.0('10)→119.4('11)→101.0('12)→101.3('13)→68.8('14)→90.6('15)

* '14년에는 환경 분야로 조사하였으며 이외의 기간은 환경·안전 분야로 조사

<연도별 체감도(환경·에너지)>



<기업 규모별 체감도(환경·에너지)>



<규모 및 업종별 응답결과(환경·에너지 분야)>

(응답비율, %)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 전 체(532) ■		9.6	15.4	60.7	12.8	1.5
기업 규모	대기업(243)	10.7	16.0	52.3	18.1	2.9
	중소기업(289)	8.7	14.9	67.8	8.3	0.3
업종	제조(282)	11.0	15.2	58.2	14.5	1.1
	건설(65)	6.2	18.5	58.5	16.9	0.0
	유통·운송(59)	10.2	18.6	61.0	8.5	1.7
	IT(13)	15.4	7.7	76.9	0.0	0.0
	일반서비스(74)	4.1	6.8	75.7	8.1	5.4
	금융권(17)	0.0	23.5	70.6	5.9	0.0
	섬유(2)	50.0	0.0	50.0	0.0	0.0
	화학·에너지(14)	14.3	21.4	35.7	28.6	0.0
	철강·금속(6)	33.3	50.0	16.7	0.0	0.0

5) 건설·건축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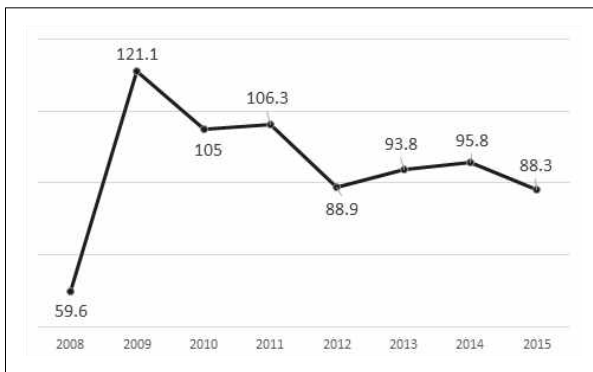
□ 건설·건축 분야 체감도는 88.3

○ 건설·건축 분야의 체감도는 88.3으로 전년에 비해 7.5p 하락했으며, 기업 규모별 체감도 차이는 오차범위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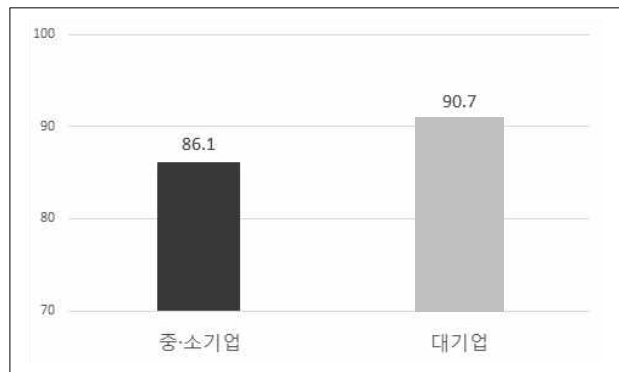
- 체감도 추이 : 59.6('08)→121.1('09)→105.0('10)→106.3('11)→88.9('12)→93.8('13)→95.8('14)→88.3('15)

* '15년은 기업 입지 및 건설·건축 분야로 조사, 이외의 기간은 건설·건축 분야로 조사

<연도별 체감도(건설·건축)>



<기업 규모별 체감도(건설·건축)>



<규모 및 업종별 응답결과(건설·건축 분야)>

(응답비율, %)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 전 체(528) ■		7.6	18.4	64.8	8.5	0.7
기업 규모	대기업(243)	8.7	15.2	63.4	11.5	1.2
	중소기업(285)	6.6	21.0	66.0	6.0	0.4
업종	제조(278)	6.8	18.3	66.2	8.3	0.4
	건설(64)	7.8	28.1	51.6	10.9	1.6
	유통·운송(59)	13.6	16.9	62.7	6.8	0.0
	IT(14)	21.4	0.0	78.6	0.0	0.0
	일반서비스(75)	4.0	14.7	72.0	6.7	2.7
	금융권(17)	0.0	11.8	70.6	17.6	0.0
	섬유(2)	0.0	50.0	50.0	0.0	0.0
	화학·에너지(14)	7.1	21.4	57.1	14.3	0.0
	철강·금속(5)	20.0	20.0	40.0	20.0	0.0

6) 금융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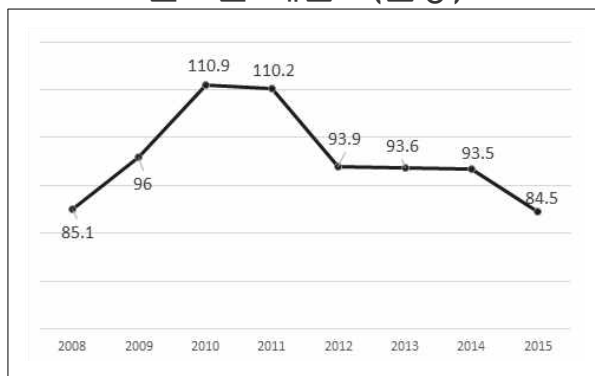
□ 금융 분야 체감도는 84.5

○ 금융 분야 체감도는 '11년 이후로 5년 연속 하락했으며 대기업의 체감도(89.1)가 중소기업의 체감도(80.7)보다 8.4p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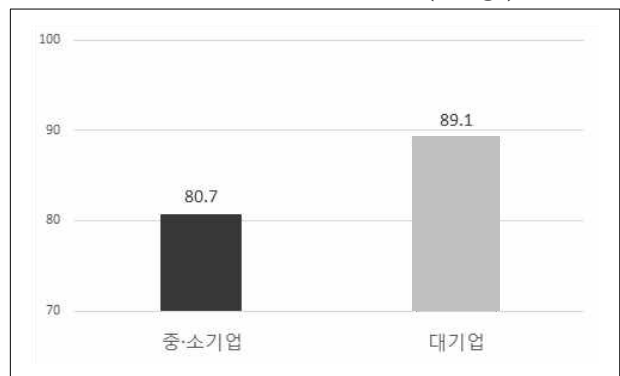
- 체감도 추이 : 85.1('08)→96.0('09)→110.9('10)→110.2('11)→93.9('12)→93.6('13)→93.5('14)→84.5('15)

* '15년 금융 분야로 조사, 이외에는 금융·자금조달 분야로 조사

<연도별 체감도(금융)>



<기업 규모별 체감도(금융)>



<규모 및 업종별 응답결과(금융 분야)>

(응답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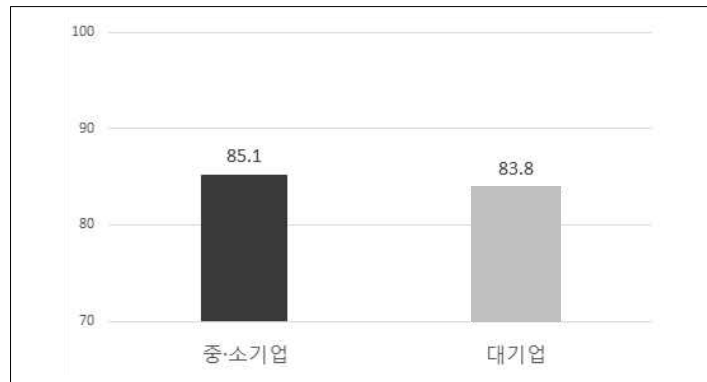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 전 체(532) ■		10.5	20.3	59.6	8.8	0.8
기업 규모	대기업(239)	8.8	17.6	61.9	10.0	1.7
	중소기업(293)	12.0	22.5	57.7	7.8	0.0
업종	제조(276)	10.5	21.0	59.4	8.3	0.7
	건설(63)	7.9	20.6	58.7	12.7	0.0
	유통·운송(60)	13.3	23.3	56.7	6.7	0.0
	IT(14)	14.3	28.6	50.0	7.1	0.0
	일반서비스(77)	9.1	13.0	66.2	9.1	2.6
	금융권(21)	14.3	23.8	52.4	9.5	0.0
	섬유(2)	50.0	0.0	50.0	0.0	0.0
	화학·에너지(13)	0.0	15.4	69.2	15.4	0.0
	철강·금속(6)	16.7	33.3	50.0	0.0	0.0

7) 방송·정보통신 분야

□ 방송·정보통신 분야 체감도는 84.5

- 방송·정보통신 분야 체감도는 84.5를 기록했으며, 중소기업 체감도(85.1)가 대기업 체감도(83.8)보다 1.3p 높지만 오차범위 이내
 - 체감도 추이 : 84.5('15)

<기업 규모별 체감도(방송·정보통신)>



<규모 및 업종별 응답결과(방송·정보통신 분야)>

(응답비율, %)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 전 체(522) ■		10.7	19.4	61.7	6.7	1.5
기업 규모	대기업(237)	11.0	20.2	61.2	5.5	2.1
	중소기업(285)	10.5	18.6	62.1	7.7	1.1
업종	제조(270)	9.3	16.3	65.2	7.8	1.5
	건설(64)	9.4	25.0	60.9	4.7	0.0
	유통·운송(57)	15.8	21.1	59.6	1.8	1.8
	IT(13)	38.5	30.8	30.8	0.0	0.0
	일반서비스(77)	9.1	18.2	61.0	7.8	3.9
	금융권(20)	5.0	25.0	65.0	5.0	0.0
	섬유(2)	0.0	50.0	50.0	0.0	0.0
	화학·에너지(13)	15.4	23.1	46.2	15.4	0.0
	철강·금속(6)	16.7	33.3	33.3	16.7	0.0

8) 노동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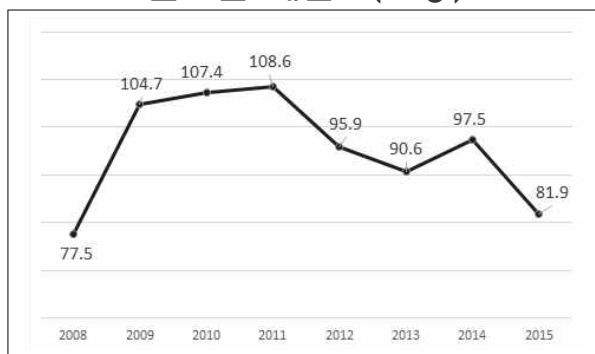
□ 노동 분야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81.9

○ 노동 분야 규제개혁 체감도는 전년 대비 15.6p 하락했으며, 대기업 체감도(82.1)와 중소기업 체감도(81.7)는 오차범위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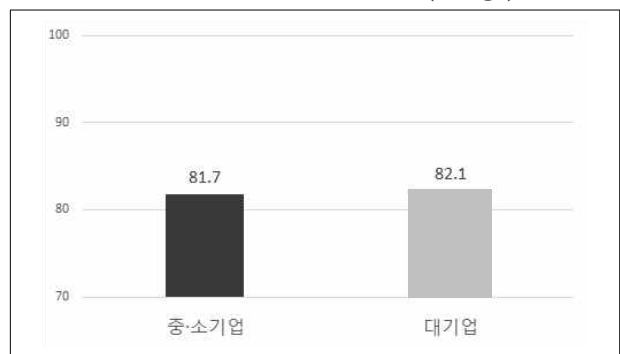
- 체감도 추이 : 77.5('08)→104.7('09)→107.4('10)→108.6('11)→95.9('12)→90.6('13)→97.5('14)→81.9('15)

* '15년에는 노동 분야로 조사하였으며 이외의 기간은 인사·노무 분야로 조사

<연도별 체감도(노동)>



<기업 규모별 체감도(노동)>



<규모 및 업종별 응답결과(노동 분야)>

(응답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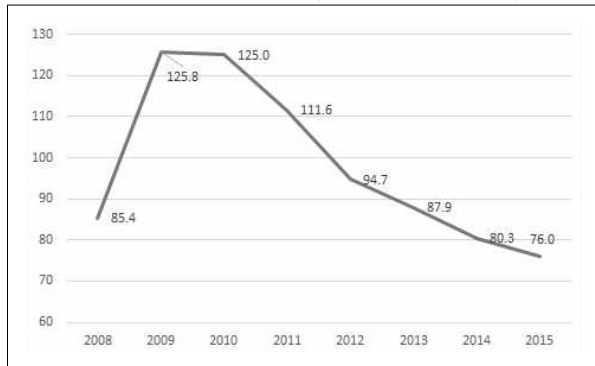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 전 체(544) ■		10.7	23.7	57.9	6.6	1.1
기업 규모	대기업(249)	11.3	23.7	56.2	7.2	1.6
	중소기업(295)	10.2	23.7	59.3	6.1	0.7
업종	제조(281)	11.4	22.1	60.5	5.3	0.7
	건설(67)	6.0	25.4	49.3	17.9	1.5
	유통·운송(60)	16.7	23.3	51.7	6.7	1.7
	IT(14)	21.4	14.3	64.3	0.0	0.0
	일반서비스(78)	7.7	25.6	62.8	1.3	2.6
	금융권(22)	4.5	27.3	54.5	13.6	0.0
	섬유(2)	50.0	50.0	0.0	0.0	0.0
	화학·에너지(14)	0.0	28.6	64.3	7.1	0.0
	철강·금속(6)	16.7	50.0	33.3	0.0	0.0

9) 대기업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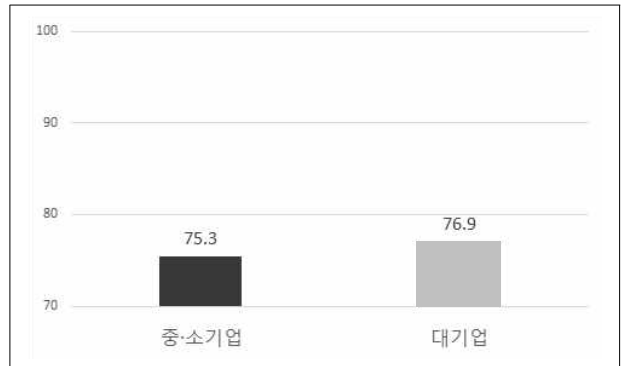
□ 대기업 정책의 체감도는 76.0

- 대기업 정책 분야 체감도는 76.0으로 조사 분야 중 가장 낮은 체감도를 기록
 - 체감도 추이 : 85.4('08)→125.8('09)→125.0('10)→111.6('11)→94.7('12)→87.9('13)→80.3('14)→76.0('15)
 - * '15년에는 대기업 분야로 조사하였으며 이외의 기간은 대기업·공정거래 분야로 조사
- 대기업 정책 체감도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체감도(76.9)와 중소기업의 체감도(75.3)는 오차범위 이내

<연도별 체감도(대기업 정책)>



<기업 규모별 체감도(대기업 정책)>



<규모 및 업종별 응답결과(대기업 정책)>

(응답비율, %)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 전 체(542) ■		16.4	24.2	51.5	6.8	1.1
기업 규모	대기업(251)	16.3	23.9	51.4	6.4	2.0
	중소기업(291)	16.5	24.4	51.6	7.2	0.3
업종	제조(282)	16.0	23.0	53.2	7.1	0.7
	건설(67)	17.9	19.4	52.2	10.4	0.0
	유통·운송(60)	15.0	31.7	45.0	5.0	3.3
	IT(13)	46.2	15.4	38.5	0.0	0.0
	일반서비스(77)	15.6	28.6	46.8	6.5	2.6
	금융권(20)	0.0	25.0	65.0	10.0	0.0
	섬유(2)	0.0	0.0	100.0	0.0	0.0
	화학·에너지(15)	26.7	13.3	60.0	0.0	0.0
	철강·금속(6)	16.7	50.0	33.3	0.0	0.0

4. 규제로 인한 투자계획 포기 및 지체 경험

□ 규제로 인해 투자를 포기·지체했다는 응답이 8.9%(50개사)

- ‘규제로 인해 투자계획이 무산되거나 지체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8.9%(50개사)가 있다고 응답
 - 제조(23개사), 일반 서비스(8개사), 건설(5개사), 유통·운송(5개사) 등

<규제로 인한 투자 포기·지체 사례(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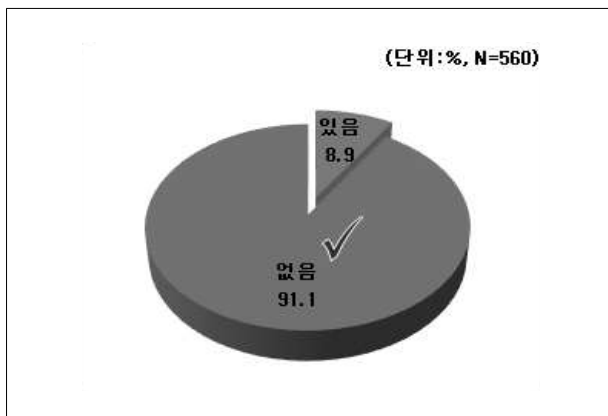
- 국토계획법과 농지법 각각의 상대절차 이행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
 - 국토계획법(토지소유권 확보 시 사업시행자 지정 가능)과 농지법(사업시행자 지정 시 농지취득 가능)은 각각 상대절차 이행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
 - G사는 경북 영양에 300MW 규모의 육상풍력발전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2024년까지 총 6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농지법상 풍력사업자의 농지 취득이 불가하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풍력사업자의 농지취득이 가능토록 ‘신재생에너지촉진법’상 예외조항 신설 필요

5. 규제개선 시 투자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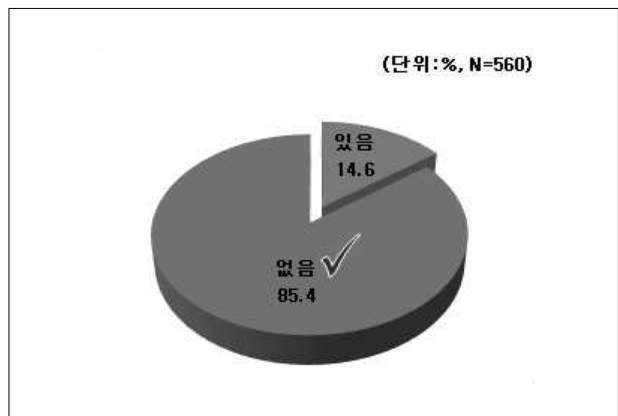
□ 규제개선 시 투자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4.6%(82개사)

- ‘규제가 개선될 경우 투자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14.6%(82개사)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
 - 제조(40개사), 건설(15개사), 유통·운송(7개사) 등

<규제로 인한 투자 포기·지체 경험>



<규제개선 시 투자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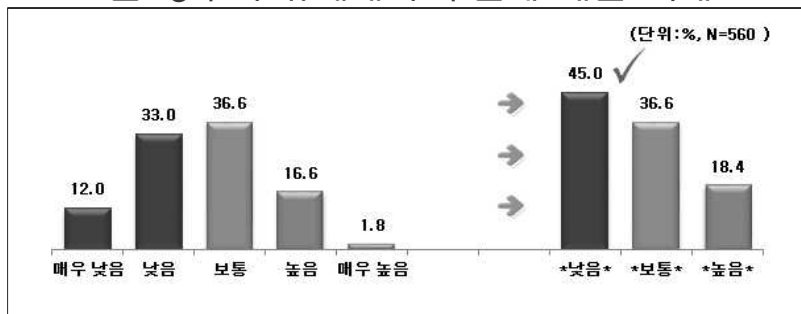


1. 향후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기대

□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응답(45.0%)이 높다(18.4%)의 2배 이상

○ 매우 높음(1.8%), 높음(16.6%), 보통(36.6%), 낮음(33.0%), 매우 낮음(12.0%)

<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기대>



○ 규모별로 대기업(22.3%)이 중소기업(15.1%)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업종별로 제조(47.2%), 일반 서비스(45.6%), 물류·유통(45.1%), 건설·건축(41.2%) 順으로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음

응답 수(응답비율, %)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 전 체(560) ■		10(1.8)	93(16.6)	205(36.6)	185(33.0)	67(12.0)
기업 규모	대기업(256)	7(2.7)	50(19.5)	94(36.7)	77(30.1)	28(10.9)
	중소기업(304)	3(1.0)	43(14.1)	111(36.5)	108(35.5)	39(12.8)
업종	제조(290)	5(1.7)	41(14.2)	107(36.9)	103(35.5)	34(11.7)
	일반 서비스(79)	2(2.5)	12(15.2)	29(36.7)	23(29.1)	13(16.5)
	건설(68)	0(0.0)	14(20.6)	26(38.2)	23(33.8)	5(7.4)
	물류·유통(62)	2(3.3)	9(14.5)	23(37.1)	18(29.0)	10(16.1)
	금융(23)	1(4.4)	7(30.4)	11(47.8)	4(17.4)	0(0.0)
	화학·에너지(16)	0(0.0)	5(31.3)	5(31.2)	4(25.0)	2(12.5)
	IT(14)	0(0.0)	5(35.7)	2(14.3)	6(42.9)	1(7.1)
	기타*(8)	0(0.0)	0(0.0)	2(25.0)	4(50.0)	2(25.0)

* 기타 : 철강·금속(6), 섬유(2)

2. 규제개혁 실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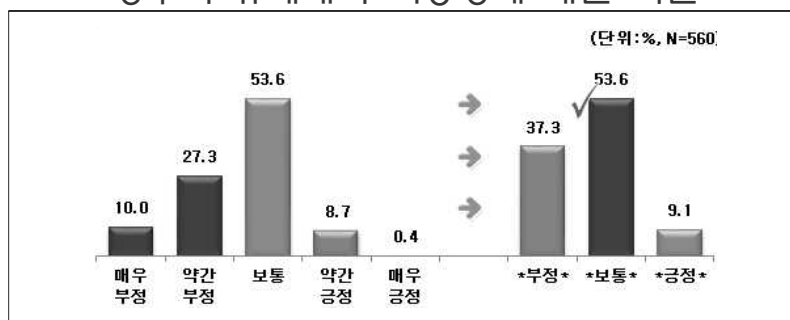
□ 규제개혁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응답(37.3%)이 높다는 응답(9.1%)의 4배

○ 규제개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긍정적(0.4%), 긍정적(8.7%), 보통(53.6%), 부정적(27.3%), 매우 부정적(10.0%) 順으로 응답

* 긍정적 응답이 2배 이상 많았던 '14년 조사결과(긍정 : 42.6%, 부정 : 18.1%)와 상반된 결과

○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능력에 대한 불신(73.9%),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한 여론 조성 수준 미약(5.7%) 順

<정부의 규제개혁 가능성에 대한 의견>



○ 규모별로 대기업(10.9%)이 중소기업(7.6%)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업종별 물류·유통(46.7%), 건설(38.2%), 일반 서비스(36.7%), 건설·건축(35.2%) 順으로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음

응답 수(응답비율, %)

업종	매우 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우 부정적	
■ 전 체(560) ■	2(0.3)	49(8.8)	300(53.6)	153(27.3)	56(10.0)	
대기업	2(0.8)	26(10.2)	142(55.5)	66(25.8)	20(7.8)	
중소기업	0(0.0)	23(7.6)	158(52.0)	87(28.6)	36(11.8)	
업종별	제조(290)	1(0.3)	25(8.6)	162(55.9)	74(25.5)	28(9.7)
	일반 서비스(79)	1(1.3)	9(11.4)	40(50.6)	22(27.8)	7(8.9)
	건설(68)	0(0.0)	4(5.9)	38(55.9)	22(32.3)	4(5.9)
	물류·유통(62)	0(0.0)	3(4.9)	30(48.4)	18(29.0)	11(17.7)
	금융(23)	0(0.0)	6(26.1)	13(56.5)	3(13.0)	1(4.4)
	화학·에너지(16)	0(0.0)	2(12.5)	9(56.3)	4(25.0)	1(6.2)
	IT(14)	0(0.0)	0(0.0)	5(35.7)	7(50.0)	2(14.3)
	기타*(8)	0(0.0)	0(0.0)	3(37.5)	3(37.5)	2(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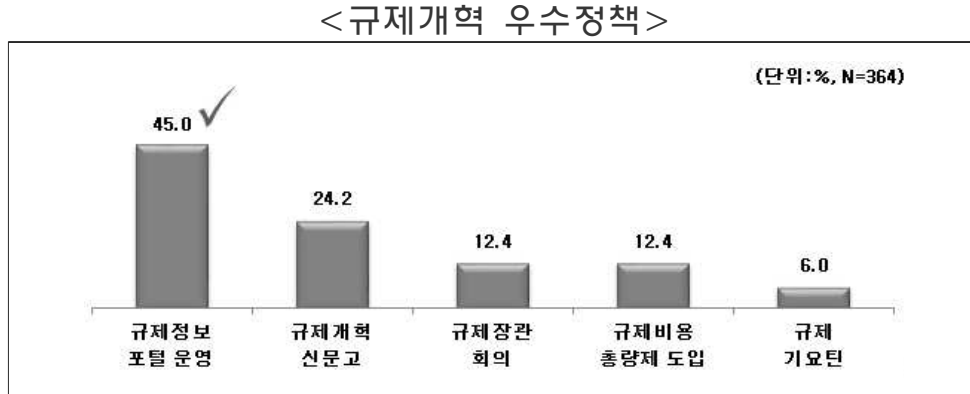
* 기타 : 철강·금속(6), 섬유(2)

3. 규제개혁 우수정책

□ 규제개혁 우수정책은 규제정보 포털 운영(45.0%), 규제개혁 신문고(24.2%)

○ 규제개혁 우수정책은 규제정보 포털 운영(45.0%), 규제개혁 신문고(24.2%), 규제장관 회의(12.4%),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12.4%), 규제 기요틴(6.0%) 順

* 기타 의견(우수정책 없음) 196건 제외



4.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최우선 개선과제

·과제선정 방식

- 6개의 규제 항목과 8개의 규제 분야별로 우선과제 2개 응답

□ (항목별) 「신속한 후속조치 (55.5%)」,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52.0%)」 順

<정부의 규제개혁 최우선 과제-규제 항목>

번호	과제명	응답 비율(%)
1	법령 개선 등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	55.5
2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와 태도 개선	52.0
3	규제총량제 등 효율적인 규제관리체계 구축	26.3
4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등 규제품질제고	20.4
5	정부 및 지자체의 미등록 규제 정비	18.9
6	유사행정규제 정비(행정지도·지침 등)	14.5

□ (분야별) 「대기업 정책 분야(40.2%)」, 「노동 분야(32.6%)」 順

<정부의 규제개혁 최우선 과제-규제 분야>

번호	과제명	응답 비율(%)
1	대기업 정책 분야	40.2
2	노동 분야	32.6
3	금융 분야	28.1
4	환경·에너지 분야	27.2
5	입지·건설·건축 분야	24.1
6	방송·통신 분야	13.8
7	관광·의료 분야	13.6
8	물류·유통 분야	7.4

참고문헌

- 2013년 규제개혁백서, 2014,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톡톡, 2013, 국무조정실·관계부처 합동
2014년 규제개혁 종합건의, 2014, 전국경제인연합회
2014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2014, 전국경제인연합회
2013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2013, 전국경제인연합회
2012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2012, 전국경제인연합회
2011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2011, 전국경제인연합회
2010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2010, 전국경제인연합회
2009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2009, 전국경제인연합회
2008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2008, 전국경제인연합회